

## 학대 피해 급증하는데 광주 장애아동 쉼터 '0'

### 내일 제44회 장애인의 날

원가정 분리 위한 전용시설 없어  
성인·일반 아동과 함께 생활해야  
“별도공간 마련·전문인력 배치”

20일 '장애인의 날'이 44주년을 맞이  
만,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마련 등 지  
원 노력이 부족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광주에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원가정과 신속히 분리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전용 쉼터가 전무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  
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학대  
신고건수는 4958건이다. 이 중 장애인학  
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로 2018년  
부터 2022년 누적 증가율은 35.5%에 달  
한다. 학대 피해자 중 17세 이하 장애아동  
은 2020년 133명에서 2022년 249명으로  
급증했다.

장애인학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광주는  
는 피해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용 쉼터가 한 곳도 없다. 학대 발생  
시 대응체계가 아동과 장애인으로만 이원  
화돼 있어 장애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  
지 못하고 있는 것. 장애아동에 대한 조사  
와 사례 관리 지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  
아 피해 가정과 분리돼 생활해야 할 쉼터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  
년 1038건, 2022년 798건으로 집계됐지  
만 이중 장애아동 수는 따로 조사되지 않  
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에 따라 장애아동 전용 쉼터 마련 근거가  
제시됐음에도 전국에서 서울·경기·울산·  
인천·부산에만 개설됐다.

광주 장애아동은 학대 피해가 발생해  
원가정과 분리 조치가 필요하면 성인과

함께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쉼터나 일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해야 한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  
동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 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은 “장애아동은 장애인 시설부터 피해아  
동 쉼터까지 아동을 받아주는 시설을 찾  
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입소  
과정부터 녹록지 않다”며 “입소하더라도  
적응을 못하거나 쉼터 종사자들이 장애아  
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된 돌봄  
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서 보호  
받고 있는 한 장애아동은 시설 입소 후 장  
에 판정을 받아 장애인 전문 쉼터로 이전  
을 준비했지만 장애아동 전용 쉼터가 마  
련되지 않아 2년째 같은 시설에서 일반 아  
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은 보호체계 사  
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  
아동 전용 쉼터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지역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위탁 운  
영 중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  
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일반  
아동과 함께 쉼터를 이용하다 보면 일반  
아동에 대한 돌봄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장애아동이 전문적인 돌봄을  
받고 일반 아동이 편안한 환경에서 보호  
받기 위해서는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쉼터에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  
하고 대처할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담당  
자들이 장애아동을 맡았을 때 힘들어하  
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아동 특성을 고려해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 학대 피  
해 장애아동이 많지 않아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장애아동은 가중치를 부여해 쉼터 정  
원에 맞춰 배치하고 있다”며 “원가정과 분  
리 조치가 필요할 때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면

정상아 기자



'길 위에 도자' 전시 개막 '길 위에 도자' 현대 도예전시가 18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6관에서 열려 관람객들이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 도예가인 세 오(Se Oh), 스티븐 영 리 등의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전시는 오는 7월 28일까지 열린다. ▶ 관련기사 15면 김양배 기자

## 호남마라톤 21일 오전 8시 승촌보서 '스타트'

하프·10km 부문... 1000여명 참가  
당일 비 소식... 컨디션 관리 유의

봄꽃이 활짝 핀 영산강변 길을 따라 전  
국의 달리기들이 힘찬 출발에 나선다.

전남일보가 주최하는 제21회 호남마라  
톤대회가 오는 21일 오전 7시 40분 광주  
남구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에서  
개막된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육상연맹과 (사)전  
일엔컬스, 마라톤세상이 주관하며 전남  
도, 광주시교육청이 후원한다.

참가 신청을 한 1000여 명의 달리기들  
이 남도의 봄 정취를 만끽하며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10km와 하프코스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출발은 10km부

터 5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이뤄진다.

10km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 승촌보  
영산강문화관을 출발해 영산강 자전거길  
을 따라 달린다 반환점인 나주대교를 돈  
뒤 다시 영산강문화관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하프코스 참가자들은 오전 8시 5분 출  
발해 승촌보를 한 바퀴 돌고 나주대교, 빛  
가람대교, 영산대교를 거쳐 반환점인 영  
산교에 다다른다. 반환점을 돈 뒤 다시 나  
주대교로 되돌아와서 승촌보로 가지 않고  
바로 끝인 지점인 영산강문화관으로 오면  
된다.

대회 주최측은 참가자들의 안전에도 만  
전을 기한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6  
명으로 이뤄진 의료지원팀 3개반을 구성  
했고, 구급차 및 환자 이송차량 3대를 배

치한다. 응급환자 발생시를 대비해 출발  
지인 영산강문화관에 광주세인트렐병원 의  
료진이 상주한다. 또 하프코스 기준으로  
구간별 5곳에 급수대를 마련해 놨다. 10  
km 코스에는 3개가 설치돼 있다. 참가자  
와 자원봉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스포츠안  
전재단 책임보험도 가입했다.

코스별로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곧바로  
시상식을 갖는다. 하프코스과 10km 부문  
남녀 1-3위는 상금과 상장, 트로피가 수  
여되며 4-5위는 상금이 주어진다. 하프코  
스 6-20위와 10km 부문 6-15위에게는 부  
상품을 준다.

한편 대회가 열리는 21일 오전 최저기  
온 14도와 비 소식이 예보된 만큼 참가자  
들은 우의와 여벌 옷을 준비하고 컨디션  
조절에 신경써야 한다. 최동환 기자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